

(우)04427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[<http://www.kma.org>]/전화(02)6350-6644/전송(02)797-8176
의무법제국장 김상구(6573)/ 불법의료대응팀장 곽석철(6532)/ 팀원 박송이(6644) / E-mail: p221011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676-07997호

시행일자 2024. 11. 7.

수 신 각 전문학회장

참 조

제 목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및 한의대 출강 자제요청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최근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및 의과약품 사용 등 한방의 의과영역 침범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

3. 이러한 때에 한의대 및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적 차원에서의 의사 회원들의 강의가 ‘한의사도 의과의료기기와 의과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’는 주장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인바,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한방의 불법의료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회원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.

4. 이에 귀 회 소속 회원님들의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및 한의대 출강 자제와 함께 회원대상 학술대회 개최 시, 비과학적 한방 강의를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회원님들께 상기 사실을 널리 안내 주시기 바랍니다.

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대한내과학회, 대한외과학회,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, 대한산부인과학회, 대한신경정신의학회, 대한정형외과학회, 대한신경외과학회,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, 대한성형외과학회, 대한안과학회, 대한이비인후과학회, 대한피부과학회,

대한비뇨의학회, 대한영상의학회, 대한방사선종양학회, 대한마취통증의학회,
대한신경과학회, 대한재활의학회,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, 대한진단검사의학회,
대한병리학회, 대한예방의학회, 대한가정의학회, 대한직업환경의학회, 대한핵의학회,
대한응급의학회